한승수 국무총리 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수도권·지방 '윈-윈' 성장전략 마련"

지난 6일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 이뤄진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훌륭한 정책조정자로서 국정비전이 잘 운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한 총리는 특유의 온화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질문에 답변했으며 외교·경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장관 및 재정경제원 장관 출신답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설명하는 열정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의 임기내 완공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총리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교통부문의 해법은 철도다. 적자가 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자원을 적게 쓸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를 빨리 완공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하다. 구체적인 예산은 체크해 봐야겠지만 호남고속철도가 가능한 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 문제를 놓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배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방과 수도권의 발전은 상호보완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발전 전략과 연계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은 광역경제권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혁신·기업도시 등을 발전적으로 보완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수도권은 기업과 주민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잘 개발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은.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농경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편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편 필요성이나 대안들이 제시됐으나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추진은 검토되지 않았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국민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문제는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양 문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내놓아서 충분히 실현되도록 하겠다.

—총리실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총리나 총리실의 위상에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 출범 직후, 자원외교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운영됐었고 이후 쇠고기 파동 등을 거치며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해 초기보다 조정기능이 강화됐다.

국무총리로서 포부가 있다면 첫째, 훌륭한 정책조정자로 기억되고 싶고 둘째, 국정비전이 잘 달성되도록 내각을 통솔해서 조화롭게 운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학자 출신인 만큼 청백리적 공무원상으로 오랫동안 기록되고 싶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 여야 합리적 대안 마련을"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은 새 국가발전 패러다임"

—정부 출범 이후 자원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돈만 내서는 얻어올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데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확보가 없이는 경제를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자원 확보는 평시에 꾸준히 해야 할 일이다.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개편 추진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심하다.

▲좌우 편향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균형적으로 사실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 초등학생의 30%가 6·25전쟁을 북침으로 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 올바로 기록돼야만 우리 역사에 대해 잘 배울 수 있다. 추진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역사가 올바로 기록되도록 전문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최근 총리실 주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내놓았는데.

▲지난 8·15때 건국 60주년 기념식하면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 60년 동안 뭘 할 것이냐를 고민해서 내놓은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우선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장과 함께 환경도 좋아지는 것이다. 셋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인류의 존망이 걸려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우리나라도 기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책이 뒤 따라야 하며 이명박 정부에서만 끝낼 일이 아니다. 거대한 비전이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이것을 정책화하는 과정에 있다.

—핵 문제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복안은.

▲북 핵 문제는 인내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미국, 북한, 우리나라만 북 핵 문제에 관여했는데 지금은 중국, 일본, 러시아가 포함된 6자가 얽힌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북한이 조속히 불능화 조치를 재개하고 '검증 의정서' 합의 도출에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현재 북 핵 해결 과정의 3단계 가운데 2단계에 온 상황이다. 이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북 핵 불능화는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완전한 북 핵 제거도 가능할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 속에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유가 상황속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시작된 미국 투자은행 부실은 그 파급 효과가 커지면서 세계 금융위기로 가고 있다. 이 같은 대외 여건 악화로 국내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는 겪겠지만, 강도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말고도 큰 경제권역이 많이 있다. 이런 나라들이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임동욱 기자

한승수 국무총리

▲1936년 강원도 춘천 출생 ▲춘천고 ▲연세대 정외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영국 요크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경제학회 회장 ▲제13,15,16대 국회의원 ▲상공부 장관 ▲주미대사 ▲대통령 비서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민주국민당 사무총장·최고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총회 의장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한국물포럼 총재·유엔기후변화 특사 ▲국무총리

약발 안듣는 美 금융구제안

세계 금융시장 대혼돈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

금융위기의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 의회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안을 통과시키며 위기 진화에 나섰지만 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년만에 10,000선이 무너져 심리적 충격을 더하고 있고 자금시장의 금리도 급등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요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 전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도 시장의 공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진화되지 않는 금융위기 공포=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급락세로 출발해 개장을 한지 30여분 만에 심리적 지지선인 10,000선이 무너지더니 결국 지난주 종가보다 369.88포인트(3.58%) 떨어진 9,955.50에 마감돼 2004년 10월 이후 4년만에 10,000선 밑으로 추락했다.

다우지수는 이날 장중에 사상 최대폭인 806포인트까지 떨어지며 9,50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증시도 폭락했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40 주가지수는 2001년 '9·11 테러' 때의 7.39%를 훨씬 웃도는 역대 최대인 9.04%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런던증권거래소의 FTSE100도 391포인트(7.85%) 떨어진 4,589.19로 마감해 역시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보였다.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중앙은행이 긴급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자금시장의 경색은 풀리지 않아 전세계적인 '자금 부족'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 금융상품의 금리를 정하는데 기준 역할을 하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는 이날도 급등세를 보였다. 런던은행연합회는 이날 하루짜리 달러 리보가 2.37%로 37bp 상승했다고 밝혔다. 3개월짜리 리보는 5bp 떨어진 4.29%를 보였다. 3개월짜리 유로 리보도 5.35%를 기록, 7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물경제로 옮겨간 위기감…커지는 경기침체 우려=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로 옮겨가고 있다. 이날 국제유가가 8개월만에 배럴당 80배럴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원자재가가 급락한 것도 글로벌 경기침체에 다른 수요 감소 예상이 반영된 결과다.

미 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9월 미국의 일자리는 15만9천개 감소, 2003년 3월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9월의 실업률은 6.1%로 전월과 같았지만 구직활동을 단념한 노동자를 포함한 실업률은 10.7%에서 11%로 높아져 1994년 4월 이후 14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위기 속에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파산도 급증, 주피터 이소스가 집계한 법원전자기록 데이터에 따르면 9월에 파산신청을 한 미 기업 수는 5천813개에 달해 1년 전보다 67%나 늘어났다. 미국의 소비도 위축돼 지난달 자동차 판매는 96만5천대로 15년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유럽은 2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했다. 9월 초 발표된 올 2분기 유로존(유로화 사용 15개국)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2% 감소해 1999년 유로화 도입 이래 처음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연합뉴스

태국 시위대 의사당 봉쇄…의원 300명 갇혀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7일 오전 충돌해 100여명이 부상한 가운데 시위대 수천명이 의사당을 에워싸 의원 300여명이 건물 안에 갇히는 등 시위가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정부 단체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가 이끄는 시위대 수천명은 이날 방콕시내 피차이 거리에 있는 의사당을 에워싸고 봉쇄해 신정부의 정책설명회를 위해 임시회를 열던 집권정당연합 소속 하원의원 320명과 상원의원 등이 출입이 차단된 채 건물 안에 갇혔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했던 솜차이 옹사왓 신임 총리는 보좌관 5명과 함께 인접한 공원의 담을 넘어 간신히 의사당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시위대는 지난 5월25일부터 "현 정부는 탁신 치나왓 전 총리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며 전면 퇴진을 요구하는 거리시위를 벌이다 8월26일에는 정부청사에 난입, 앞마당에서 이날 현재 43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법원경매
친절상담
☎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근린주택/상가)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동구	황금동	588/1989	21억1000만	4억8400만	12억원 모텔 드로잉
서구	화정동	1128/2185	16억8700만	11억8100만	신축이후 임대중 교육학원
	화정동	144/314	2억8000만	1억9630만	화정역 도보권 중대형 사무실
북구	용봉동	495/177	8억8500만	6억1900만	모텔 인근 사설학원
	신안동	201/295	2억1800만	9790만	주변 상가 밀집지역 사무실
	유동	316/479	2억9000만	1억8600만	12억원 모텔 도로변
	임동	91/165	2억2200만	1억5500만	상무 10차선 도로변
	용봉동	456/738	6억2000만	4억3400만	지하1층 사무실 현재 치킨집
	운암동	484/1324	12억7000만	8억9000만	상가 사무실 학원 보육원 인근
	용봉동	430/816	7억800만	4억9600만	노대 있는 주택 상가 인근
동구	충장로7가	197/647	14억7000만	8억2700만	충장로 사무실
광산	쌍암동	1959/555	2억8200만	1억6400만	임야 유원지 인근, 도로접
화순	북면원리	129736/651	6억5600만	2억9300만	종교시설

▶다가구 (원룸)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서구	쌍촌동	180/334	2억5000만	1억7500만	3층/5가구 금호초교앞
동구	계림동	218/398	3억8000만	2억1000만	3층/15가구 계림동 구축
광산구	송정동	965/631	4억4000만	3억2000만	4층/16가구 월계동인근
북구	두암동	187/348	2억4000만	1억3650만	3층/8가구 무등파크 2차인근
	임동	158/281	2억1000만	1억5000만	3층/12가구 일신빌라인근

▶숙박시설 (모텔)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전북	남원시	2816/1579	11억4000만	5억8300만	인월IC인근/지리산호텔
동구	학동	364/857	8억1900만	4억5820만	법무법인
북구	운암동	3430/10928	118억	65억	시외버스터미널/누보빌스
	신안동	706/2972	22억8000만	12억7000만	1층/1트 도로
광산구	월계동	503/1413	15억8000만	5억6700만	현대자동차 인근/대로변

▶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남구	월산동	158.5	2억7000만	1억2000만	롯데오피스텔, 10층
	월산동	39.8	4400만	1900만	롯데오피스텔, 5층
북구	북동	39.6	4000만	1700만	오피스텔, 대학교앞인근, 4층
서구	치평동	69.3	9500만	5300만	상무구청 스트리트, 10층
	치평동	47.4	3억3000만	2억3100만	로얄드림오피스텔 교육청인근
	화정동	12.2	5500만	3850만	금호월드, 10층

▶주택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화순	도암면 한국리 동편	523/152	4680만	2630만	천태마을내
		505/165	1억6300만	1억1400만	전원주택지역
장성	장성읍 안평리	463/112	4000만	2280만	구인원마을내
나주	왕곡장산리	582/287	4900만	3400만	구시마을내
	금계동	388/186	1억4700만	1억300만	혁신시티인근단독주택
동구	계림동	182/73	8300만	5800만	계림구역 재개발지역
서구	쌍촌동	154/156	1억900만	7620만	상무시청, 지하철근접
	화정동	142/166	1억2260만	8580만	상무초교주근
북구	중흥동	150/141	9390만	4200만	주택재개발
	중흥동	159/173	1억1800만	8300만	북구 청소년수련관
	임동	304/183	1억9400만	5500만	무등경기장 인근
	오치동	143/167	1억3400만	9400만	용봉초교인근
광산구	소촌동	191/182	8880만	4970만	송정중앙초등교인근 2층

▶토지

지역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나주	이창동	대지	347	8300만	5800만	이창혁신개발
	대기동	과수원	10698	2억5000만	1억4380만	관리지역
	노안면	답	1752	1750만	1230만	신일마을인근
	산포면	답	1978	6878만	6878만	개발도로접 신촌혁신도시인근
장성	삼계면	답	1396	2억600만	1억1000만	투자적합
	장성읍	임야	112463	1억5000만	5800만	도시지역
담양	남면	임야	6942	8300만	5800만	전남교육연수원인근
곡성	입면	대지	608	1580만	1100만	관리지역, 기타도로접
광산구	신창동	전	2073	4억8000만	2억2100만	투자적합
	신창동	전	3621	8억7000만	3억8000만	투자적합
	신촌동	답	3289	3억5800만	2억5100만	최대도로변 상업지인근
동구	산수동	대지	225	7430만	5200만	주거환경개선지구2종
남구	월산동	대지	314	5억4800만	2억4500만	월산상업지역, 대로변
북구	용봉동	대지	672	7억4000만	4억1000만	상가, 원룸 투자적합
	신안동	대지	595	4억7000만	2억8400만	5미터 도로접합
	생룡동	답	5451	5억7300만	4억5800만	자연마을인근

▶농가관련시설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곡성	목사동면	1149/165	4400만	1280만	특별등지, 관리지역
	곡성읍	1451/736	9440만	5300만	도시, 30미터 도로접
화순	도암면	1679/394	5050만	2630만	특별정지, 40미터도로접
	화순읍	5031/1739	2억7000만	9700만	도시, 50미터도로접

▶아파트

지역	소재지	명칭	층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소촌동	서라벌차	12층	79	5300만	3710만
	우산동	사랑 단지	5층	66	4600만	3220만
남구	주월동	현대	7층	82	6200만	4340만
	봉선동	두들강차	4층	102	1억1000만	7700만
	봉선동	금호1차	5층	145	2억	1억4000만
	진월동	삼익2차	2층	156	1억8500만	1억1550만
북구	두암동	미라보	4층	82	5500만	3850만
	말바위동	롯데	6층	136	1억9000만	1억3300만
	용봉동	한신	8층	82	5500만	3850만
	매곡동	금호	3층	79	7500만	5250만
서구	화정동	효반	9층	82	7200만	5040만
	금호동	중흥	11층	79	9300만	6510만
	금호동	한국	3층	79	9000만	6300만

▶공장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안청동	3552/4858	30억	21억5000만	하남공단내, 8번도로
	용동	1980/994	6억3700만	4억4600만	평동공단내
장성	진원면	1144/839	7억4000만	5억1820만	연소제지인근
담양	대전면	9332/2208	11억	8억1900만	한재초교인근, 버섯재배사
화순	도곡면	2127/1332	4억	2억2800만	도곡농공단지내, 식품공장
	동면	19885/4105	16억7000만	5억8000만	동면농공단지내
나주	노안면	2007/1464	5억1400만	3억5000만	월송마을인근 도로접
곡성	옥과면	3157/1654	7억1000만	3억2000만	옥과초교인근, 버섯재배사

▶다세대(빌라)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서구	금호동	로얄빌	129	2억7500만	1억9400만	1층/인호초교인근
남구	주월동	광림맨션	80	5200만	3500만	2층/백운공원인근
북구	각화동	라일빌주	75.8	9300만	5200만	2층/금호빌딩인근
광산구	우산동	주공2단지	50.72	4600만	3220만	1층/재건축상가인근
	신가동	그린빌	84.6	1억4300만	1억	4층/신가동중앙인근
동구	학동	미래빌	71.87	1억1000만	7700만	2층/상무시청,지하철근접/비상등
곡성	옥과면	이마빌	65.04	7300만	5110만	1층/고등학교앞인근

▶기타

지역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화순	능주면	989/354	1억3600만	9540만	자은초교 사무실
나주	대기동	5134/435	1억4940만	1억460만	자은초교
곡성	죽곡면	429/40	2420만	1550만	관리지역, 자은정교

전북 남원시 대2616/건1579 감정가11억4000만 최저가5억6000만 지리산호텔

쌍촌동 대208/건491 감정가4억2800만 최저가2억8900만 원룸

여수시돌산읍 대2595/건807 감정가8억5000만 최저가6억8630만 베 레스토랑

충장로2가 대197/건647 감정가4억7000만 최저가8억2700만 상가,사무실

월계동 대97/건335 감정가5억7000만 최저가2억5500만 학원

계림동 대218/건396 감정가8억8000만 최저가2억1000만 원룸/계림8구역